



냉각의 겨울 바다 동해의 1박 2일

이영생*

지난 12월 18, 19일 양일간 오금동지회(회장 천병식 교수)에서는 2004년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송년 동해관광 행사를 가졌다. 원래는 등산도 예정돼 있었으나 부부 참가가 늘어남에 따라 골프와 온천 및 동해안 여행으로 바뀌게 되었다. 첫째 날 새벽 6시 우리학회 회원들이 많이 거주하는 오금동 현대아파트 앞에 집합하여 티업 시간 관계상 2개조로 나뉘어 1조는 06시에, 2,3 조는 07시에 각각 출발하기로 하였는데 필자는 1조에 소속되어 06시 10분쯤에 동해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09시 30분쯤 삼척시 소재 파인밸리 골프장에 도착하여 라운딩을 즐긴 후 2,3 조와의 시간 차이로 인하여 삼척시 원덕읍 신태미 마을에 있는 海神堂 공원에 들리게 되었다. 이 마을에는 나무로 男根을 깎아 매달고 금줄을 쳐서 제사 지내는 海神堂 고사가 있다. 이와 관련된 전설은 다음과 같다. 옛날 아주 오랜 옛날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왕조 제14대 선조 무렵 가뭄으로 산천은 험벗고 백성들은 초근목피마저 없어 굶는 것을 밥 먹듯 하던 시절이었다. 궁벽한 어촌 마을인 신남리도 예외가 아니어서 당장 봄 살아나기가 어려운 처지였다. 이때 신남리 마을에 아름다운 한 처녀는 혼례를 올릴 나이였지만 속절없이 노처녀가 되었다.

* 경기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yslee@kuic.kyonggi.ac.kr)

이웃집의 건장한 총각과 눈만 맞추고 지냈다. 이른 봄날 처녀는 바다 나물을 뜯으러 해변에서 한참 떨어진 돌섬에 가겠으니 배를 태워 달라고 총각에게 부탁하였다. 총각은 돌섬에 처녀를 데려다 주고 한 낮이 되면 다시 오기로 약속하고 물로 나와 밭일에 열중하였다. 어느덧 해가 중천에 솟았고, 약속한 총각은 해변가로 나왔으나 배를 띄울 수 없었다. 풍량이 크게 일어 바다가 뒤집힐 지경이었다. 한낮이 지나고 저녁이 지나고 밤이 와도 풍량은 그치지 않고 파도가 높이 솟았다. 결국 처녀는 돌섬에서 보이지 않았고 처녀가 살려 달라고 애쓰다 죽었다 하여 그 바위 이름은 “애바위”로 불리게 되었다. 처녀가 “애바위”에서 죽은 후부터 신남리 마을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 가는 마을에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은 참으로 큰 변괴였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바다에 간간 마을의 어부들도 풍랑을 만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괴변이 자주 생겼다. 어부들 사이의 물론 온 마을에는 애쓰다 죽은 처녀 때문이라는 등 뒤숭숭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한 어부가 화가 나서 바다를 향해 남근을 내어놓고 오줌을 싸면서 욕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이상하게도 그물에 많은 고기가 잡혔다. 또 하나 전하는 이야기는 좋아지내던 총각의 꿈에 그 처녀가 산발하고 나타나 “나 해신의 원혼

을 달래어 달라"라는 하소연을 하였다. 총각은 이른 날 당장 향나무로 남근을 깎아 해신당 신수에 얹어 달아 놓고 처녀의 혼을 위로하는 제사를 올렸다. 그 후부터 총각에게는 고기가 신기하게도 잘 잡혔다. 어부들은 그 연유를 듣고 너도나도 남근을 깎아 신수에 매달아 놓고 제사를 올렸다. 그랬더니 너도나도 모두에게 고기가 잘 잡혔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고기가 안 잡힌 것은 애쓰다 죽은 처녀의 원혼 때문이라고 확신하고 처녀의 위령제를 지내자고 의논하여 공동으로 실물 보다 조금 더 큰 남근을 깎아 해신당 신목에 매달고 치성을 올리게 되었다. 그 이후부터 음력 정월 대보름날의 해신당 제사는 마을의 큰 연중행사가 되었다.

海神堂 공원을 둘러 본 후 다 함께 합류하게 되었는데 부부동반 7팀을 포함하여 22명이나 되었다. 다음 행선지인 경북 울진의 덕구온천으로 향하였는데 가는 길에 자연산 활어회로 유명한 임원항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다. 수많은 찻집이 있었는데 우리 일행은 그 중에 미조리찻집(033-573-3588)에서 식사를 하였다. 운동과 여행으로 약간은 지치고 배고픈 상태에서 비릿한 바다바람과 함께 맛 본 여러 가지 모듬회, 한치회, 전복 등은 도시에서 맛보던 회 맛과는 전혀 다른 정말 일품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특히 동해에서 해녀들이 갓 잡아 온 자연산 전복을 소주에 담가두면 전복들이 취하여 즐거움이 극에 달해 있을 때 술 취한 전복(酒전복 : 천희장님이 붙인 이름)을 먹게 되면 쫄깃쫄깃한 그 맛하며 전복이 토해낸 술(전복酒)의 향기로운 맛은 지상에는 없는 특수한 술맛이며, 그 전복으로 쏜 전복죽은 지금까지 맛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별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사진 1 참조).

저녁 식사를 마치고 버스로 약 30분 쯤 달려 마침내 덕구온천에 도달하였다. 덕구온천을 소개하자면

“국내 유일의 노천 온천이며, PH 9.09 중탄산 나트륨을 함유. 약알카리성 온천으로 수질 좋기로 국내 제일이다. 신경통과 피부염 특히 잠수, 운동, 등산 등 근육 피로를 푸는데 더욱 특효를 보며 2~3일 계속해서 입욕시 효과가 좋다. 고려 말 약 650여 년 전 궁수와 창수로 유명한 전모 씨가 사냥꾼을 이끌고 멧돼지를 쫓던 중 상처를 입고 도망가던 멧돼지가 계곡물에 몸을 씻더니 손살같이 달아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살펴보니 그곳에서 자연에서湧출되는 온천수를 발견했다는 전설이 있으며 그 후 주민들이 계곡의 바위를 쪼아 물을 고이게 만들고 탕으로 이용했으며 근래에 들어 개발되기 전까지 만성피부병이나 문둥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와 치료를 하기도 했다.” 각자의 방에 여장을 풀 후 일부는 휴식을 일부는 노래방에서 여흥을 즐기는 가운데 첫째 날이 저물고 있었다.

둘째 날 아침 일찍 온천욕을 즐기고 여정을 재촉하였는데 시간 관계 상 4km 산책 코스에 조성된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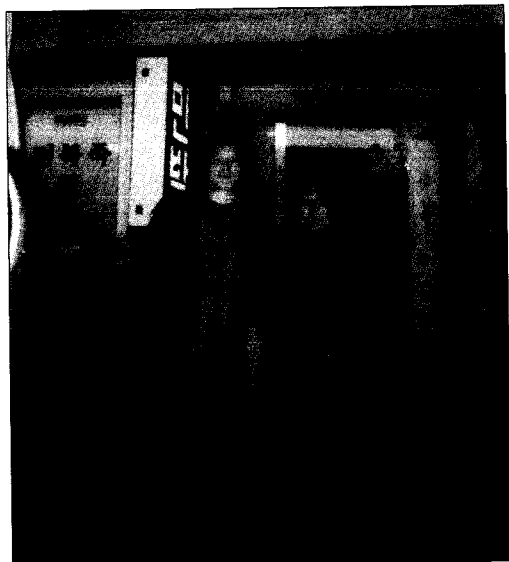


사진 1. 미조리찻집 주인장과 함께(좌측이 천희장님)



사진 2. 정라횃집 식사광경

문교, 노르망디교, 하버교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미니 어처 다리공원을 관람하지 못한 것이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동해안을 따라 거슬러 올라오면서 도중에 아름다운 해안선이 자랑거리인 장호·용화 해수욕장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념사진도 촬영하고 잠깐 휴식도 취하였다. 이곳은 새벽 고기잡이 어선에서 싼 값에 싱싱한 고기맛을 볼 수 있고, 맨발 산책로도 유명하다. 또한 동해안을 따라 조금 더 올라오면서 2, 3년 전에 상영된 영화 “봄날은 간다”의 촬영지이기도 한 맹방해변의 아름다운 모습도 멀리서 조망할 수 있었다. 이 곳 해변은 맹방명사심회로도 불리 운다. 이 곳은 상우(유지태)와 은수(이영애)가 파도소리를 들으며 사랑을 키워 간 곳인데 눈을 감으면 삼킬 듯이 포효하는 파도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맹방해변과 접해있는 덕산해변은 한적한 겨울바다의 분위기를 느끼기에 더 없이 좋다. 거의 10시가 가까이 다 되어 삼척 시내 한 가운데 쫓으로 여겨지는 도루묵(양미리)찜이 전문인 정라횃집(033-573-3670)에서 아침식사를 하게 되었다(사진 2, 3 참조). 이 집은 한국전통음식보존협의회에서 선정한 향토미각순례 “한국 맛있는 집 777호점”으로서 주인아주머니가 TV 프로그램에 소개된 사진들이 벽면 사방에 잔뜩 붙어 있었다. 아마도 주인아주머니



사진 3. 정라횃집 시장과 함께(맨 왼쪽이 필자)

가 언론플레이에 능한 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도루묵에 관련된 전설로는 선조임금께서 임란 피신 중 배고픈 가운데 도루묵을 맛있게 먹고 다시 돌아온 후 그 때의 맛있던 기억을 되살려 다시 가져오게 하였으나 이때는 아무 맛이 없어 도로 물리쳤다는 전설이 있다고 한다. 도루묵 맛은 다른 생선과는 달리 기름기가 별로 없고 담백한 맛이 특징인 것 같았다. 따라서 다른 분들의 입맛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바닷가 출신인 필자의 입맛에는 약간 미흡한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맛갈스럽다는 느낌은 가질 수 있었다(사진 3 참조). 늦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동해안을 따라 올라오면서 추암해변 및 촛대바위를 관람하였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주변에 관광객이 비교적 많이 보였다. 이 곳은 한류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로서 정동진과 함께 동해안 최고의 일출 명소로 알려져 있다. 주인공 준상(배용준)과 유진(최지우)이 키스를 한 장소라나 어쨌거나 하는 부연 설명도 있었다. 또한 이 곳은 남한산성의 정동쪽에 있다 하여 正東方이라 한다. 다시 동해고속도로를 따라 동해안을 약 30분 정도 거슬러 올라오다가, 대한민국에서 화장실에 앉아서 볼 때 가장 전망이 좋은 휴게소라고 하는 “옥계” 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가졌다. 정말로 절벽의 해



사진 4. 촛대바위를 배경으로



사진 5. 정동진 백사장에서 다 함께



사진 6. 미가연에서 맛있는 메밀 음식을 먹으며

안가에 지어져 탁 트인 동해바다를 바라볼 수 있었는데 저 멀리 발아래로 내려다보이는 해안가와 어우러진 파도소리가 함께하는 그 풍경은 가히 일품이었

다. 다시 갈 길을 재촉하며 해안가에 바짝 붙은 국내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현화로” 해안선을 따라 30분 쯤 후에 도착하게 된 곳이 正東津이었다. 말 그대로 광화문 사거리에서 正東쪽인 이 곳은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로 너무나 유명해진 국민 관광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대한민국 관광명소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사진 5 참조). 이 곳에서 거대한 모래시계랑 정동진역 등을 둘러보고 바다 바람도 쐬며 해변가를 거닐다가 서울로의 귀가 길을 서둘게 되었다. 정동진역은 역사에서 백사장까지 가장 가까운 역으로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 영동고속도로를 따라 상경 중 장평 IC에서 봉평 시내로 진입하여 미가연(전화번호 : 033-335-8805, 메밀음식 전문 식당)이라는 음식점에서 늦은 점심을 먹게 되었다. 이 집은 모든 음식이 메밀로 만든 것 같았는데 메밀묵, 메밀막국수·냉면, 메밀전병, 메밀묵말이, 메밀즙, 메밀짜비빔밥, 메밀빈대떡 그리고 메밀동동주 등 <봉순이스페셜>로 모두들 맛있게 먹었다. 또한 손님들에게 좀처럼 내놓지 않는다는데, 특별히 단골손님 천희장님 덕분에 맛보는 3년 묵은 총각무와 고랭지 생배추잎은 난생 처음 맛보는 상싱하면서 은은한 깊은 맛을 내어 어릴적 외할머니의 솜씨를 충분히 연상시키고도 남음이 없었다. 아주 맛있었던 것 같았다(사진 6 참조). 다시 귀가 길을 재촉 중에 그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으로 유명한 可山 李孝石 生家를 방문하게 되었다. 그리고 생가 옆에 조성된 이효석 기념관(문학관)도 관람하였는데 예전에 TV문학관으로 상영된 바 있는 단편드라마 “메밀꽃 필 무렵”은 TV모니터로 항시 상영되고 있다 하고 그 외 이효석에 대한 다양한 알찬 내용들로 잘 꾸며져 있었다. 기념관 내에서 이효석 소개 홍보 영화를 단체 관람한 후 이틀간의 모든 여정을 끝내고 서울로 향하였다. 일요일이어서 그런지

영동고속도로가 많이 막혀서 거의 밤 10시 가까이 되어 원래 출발지인 오금동 현대 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하였다. 모두들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천병식 회장님의 마무리 인사말을 끝으로 모두들 이틀 동안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과 함께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끝으로 부족한 필력으로 줄지에 여행참가자를 대신하여 기행문을 쓴 점에 대하여 같이 동행한 여러분께 누를 끼치지나 않았는지 염려스럽고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고를 끝까지 읽어주신 회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와 함께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